

2017학년도 인하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어 필기고사 문제지

수험번호() 모집단위() 성명()

-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은 2점, 2.5점 또는 3점입니다.
배점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5점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가] 책이 완성된 며칠 뒤에 친구에게 보이고 그 비평을 구했더니, 말하기를 “그대의 고생하며 노력한 자취는 ㉠가상하나, 우리글과 한자를 섞어 쓴 것이 ㉡문장가의 궤도를 벗어났으니, 안목이 있는 사람들의 ㉢비방과 웃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기를 “이는 까닭이 있는 일이니 첫째,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평이함을 위주로 한 것이어서 글자를 대강 이해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둘째, ㉣나 자신이 책을 많이 읽지 못해 작문하는 법에 미숙한 까닭으로 기록의 편이한 방법을 택하기 위함이다.

[나] 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둘러보건대 ㉤각 나라의 언어가 다른 까닭에 문자 또한 같지 아니하니 무릇 언어란 사람의 생각이 음성으로 나타난 것이요, 문자란 사람의 생각이 일정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인 까닭에 언어 문자는 나누면 둘이요, 합치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다.

[다] 우리나라의 글자는 우리 선왕께서 창조하신 문자요, 한자는 중국과 두루 쓰이는 문자인바, ㉥나는 오히려 우리 글자만을 순수하게 사용치 못했음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처지인 것이다. 더구나 외국과 이미 국교를 맺은 오늘날, 온 나라 사람들 — ㉦상하귀천이나 여자, 어린이를 가릴 것 없이 저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고는 안 되는 터인즉, 서투르고 ㉧난잡한 한자로 혼돈된 이야기를 늘어놓음으로써 참다운 ㉨정경이나 사실을 기록하는 데에 어긋남이 있기 보다는 ㉩유창한 글과 친근한 말에 의지하여 사실 그대로의 상황을 충실히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 나랏 말쑥미 中囡國圀에 달아 文문字字종와로 서르 스몓디 아니홀썩 이런 전츠로 어린 百백姓성이 니르고져 홀 배 이셔도 믇츨내 제 브들 시러 퍼디 몬홀 노미 하니라 내 이를 爲爲호야 어엿비 너겨 새 로 스믈여들 字字를 밍그노니 사름마다 히여 수빔 니겨 날로 뿌메 便便安안한키 호고져 홀 썩르미니라

1. 윗글에서 밑줄 친 ㉠~㉥의 뜻풀이 가운데 잘못된 것은?

- ① ㉠가상하나: 착하고 기특하나
- ② ㉡문장가: 문장을 잘 짓는 집안
- ③ ㉢비방: 남을 나쁘게 말함
- ④ ㉣난잡한: 어렵고 매끄럽지 못한
- ⑤ ㉥정경: 마음에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경치나 장면

2. 윗글에서 밑줄 친 ㉣~㉥ 가운데 [라]에서 언급된 내용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3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윗글 [라]에 나타난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은?

- ① 현대국어에 비해 고유어 사용이 더 많다.
- ② 팔중성법을 지키고 있다.
- ③ 두음법칙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④ 한글과 한자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 ⑤ 주격조사 ‘가’가 보인다.

4. 다음의 밑줄 친 말 가운데 맞춤법에 맞는 것은? [2점]

- ① 목이 메이도록 슬피 울었다.
- ② 과녁을 정확히 맞추지 못했다.
- ③ 내일 우리집에 들려주세요.
- ④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마치세요.
- ⑤ 간장을 다리느라 집에 냄새가 가득하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8]

[가] 평야를 가로질러 여행하면서 나는 드물게 아무런 억제 없이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고, 집필 중인 스탕달론(論)을 생각하고, 나의 두 친구 사이에 형성된 불신을 생각한다. 내 정신이 어려운 관념에 부딪혀 텅 빌 때마다 의식의 흐름은 창밖의 대상에 달라붙어 몇 초 동안 그것을 따라간다. 그러다 보면 또 새로운 생각의 뿌리가 형성되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술술 풀려나가곤 한다.

몇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꿈을 꾸다 보면, 나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감정이나 관념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집은 아니다. 가구들은 자기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도 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정적 환경은 우리를 일상생활 속의 나라는 인간, 본질적으로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인간에게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

[나] 해야 할 일이 생각뿐일 때에 정신은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치 남의 요구에 의해서 농담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투를 흉내내야 할 때처럼 굳어버린다. 그러나 정신의 일부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생각도 쉬워진다. 예를 들어 우리의 정신에는 [A]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 기억이나 갈망이나 내성적이고 독창적인 관념들은 두려워하고 (㉡) 의식에 뭔가 어려운 것이 떠오를 때면 모른 척하고, (㉢) 행정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음악을 듣고 있을 때나, 눈으로 줄지어 늘어선 나무들을 쫓을 때, 이런 부분이 잠시 한눈을 팔도록 유도한다.

[다] 여행은 생각의 [㉠]이다.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보다 내적인 대화를 쉽게 이끌어내는 장소는 찾기 힘들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다른 경우라면 멈칫거리기 일쑤인 내적 사유도 흘러가는 풍경의 도움을 얻어 술술 진행되어 나간다.

[라] 모든 운송수단 가운데 생각에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마 기차일 것이다. 배나 비행기에서 보는 풍경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열차에서 보는 풍경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열차 밖 풍경은 안달이 나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그러면서도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움직인다.

어쩌다 사적인 영역들이 흘끗 눈에 띄어 영감을 얻기도 한다. 예를 들면 기차는 한 여자가 부엌 찬장에서 컵을 꺼내는 바로 그 순간을 보여주었다가, 이어 테라스에서 자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구경시켜 주었다가, 공원에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물이 던진 공을 잡으려는 아이의 움직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5. 윗글의 문맥으로 보아 [㉠]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단어는?

- ① 산과
- ② 운송수단
- ③ 고향
- ④ 이동과정
- ⑤ 집

6. 위 [나]의 밑줄 친 ㉠㉡㉢ 순서에 맞게 [A]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한다면?

- ① 신경증적이고, 검열관 같고, 실용적인
- ② 신경증적이고, 실용적이고, 검열관 같은
- ③ 실용적이고, 검열관 같고, 신경증적인
- ④ 검열관 같고, 신경증적이고, 실용적인
- ⑤ 검열관 같고, 실용적이고, 신경증적인

7. 위의 예문을 논리 전개에 맞게 다시 배열한다면?

- ① [나] - [가] - [다] - [라]
- ② [나] - [다] - [라] - [가]
- ③ [다] - [나] - [가] - [라]
- ④ [다] - [나] - [라] - [가]
- ⑤ [다] - [라] - [나] - [가]

8. 윗글의 내용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3점]

- ① 연주가가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여행을 할 필요가 있다.
- ② 음악이나 차창 밖의 풍경은 우리의 감정이나 관념적 사유에서 한눈을 팔게 한다.
- ③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
- ④ 인간의 두뇌는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할 때 최고의 영감을 발휘할 수 있다.
- ⑤ 우리의 중요한 감정이나 관념은 집의 편안함 속에서 잘 알아차릴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9-10]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들헤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룬님 오신 날 밤이여드란 구뽀구뽀 퍼리라

시조는 노래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그 표기가 들쭉날쭉이어서, 우선 민을 만든 텍스트를 확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위의 인용은 김태준이 교열한 『청구영언』에서 뽑은 (㉠)인데, 이 작품에 관한 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텍스트다. 다른 본과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부분은 초장 넷째구 ‘들헤내어’(들로 끊어내어) 대신 ‘버혀내어’인데, 후자의 살기(殺氣)는 사무침 속에서도 따듯하기 그지없는 이 시의 전체적인 기품과 썩 어울리지 않아, 나는 전자를 옹호한다. 또한 ‘밤이여드란’에 있어서도 다른 본에서는 ‘밤에’ ‘밤이여든’이 보통인데, 이렇게 바꿔놓고 읽어보면 웬지 허방을 던는 듯한 허한 느낌을 가지게 됨을 금세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밤이여드란’이란 멋진 표현이어야 여운이, 그 소리의 그늘과 함께 서늘하게 깊어진다.

이제 이 시를 그 소리의 결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되도록 천천히 읽어보자. 시인이 봉인한 이 놀라운 언어적 공간으로 들어갈 자물통을 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독자와 시의 황홀한 스파크로 인도할 ‘불신의 자발적 정지’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독자들은 그 시의 소리결에 예민하게 자신을 내어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시조는 (㉡)의 정형시다. 각 음보의 자수(字數)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

여기서 우선 주목할 것은 중장 첫째구 ‘춘풍’이다. 이 음보는 2음절이지만, 읊조릴 때도 그대로 두 음절로 방정맞게 읽어버리면 시 전체가 죽어버린다. ‘추-니 풍’ 정도로, 즉 2.5음절이 적당하다. 이것은 마치 (㉢)에 나오는 ‘갈 봄 여름 없이’에서 ‘갈’을 ‘가-르’로 음송해야 시의 맛이 살아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중장의 파격이다. 중장에서 급박히 전·결로 내리뛰게 마련인데, 중장의 파격은 여기에 말미암을 것이다. 이는 (㉣)의 구조를 창조적으로 계승한 유구한 전통이다.

초·중장의 순탄한 흐름에 마침표를 찍는 (㉤)이 바로 중장인바, 그 가운데서도 둘째구의 무거운 음보는 용의 눈동자에 해당할 터이다.

9. 윗글의 ㉡에 들어갈 각 음보 자수의 도해로 옳은 것은? [3점]

- ① 3 5 4 4 / 2 4 4 4 / 5 6 4 3
- ② 3 3 6 4 / 2 4 4 4 / 3 8 4 3
- ③ 3 5 4 4 / 4 2 4 4 / 3 8 4 3
- ④ 3 5 4 4 / 2 4 4 4 / 3 8 4 3
- ⑤ 3 5 4 4 / 2 4 4 4 / 3 3 4 4 3

10. 윗글의 괄호 ㉠~㉤ 안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황진이의 「동짓달」
- ② ㉡-4음보 3행
- ③ ㉢-이육사의 「광야」
- ④ ㉣-10구체 향가
- ⑤ ㉤-화룡점점

11. 다음 가운데 표준발음법상 받침의 ‘ㄹ’이 발음되지 않는 것은? [2점]

- ① 흙이
- ② 맑군요
- ③ 여덟
- ④ 넓다
- ⑤ 밟다

12. 다음 대화에서 발생한 불편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출발을 재촉하며) 선생님 늦겠어요. 어서 가세요.

- ① 타당한 근거를 들어 말하지 않았다.
- ②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하고 있다.
- ③ 경어법을 지키고 있지 않다.
- ④ 말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
- ⑤ 상위자에 대해 그 행위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15]

말뚝이 : (병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 만이는 생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생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생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생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老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六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겠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 나오신다고 그리 하였습니다.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말뚝이 : 쉬이. (반주 그친다.)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 짬뽕만 곰방대로 잡숫지 말고 저 연죽전(煙竹麈)으로 가서 돈이 없으면 내게 기별이라도 해서 양칠간죽(洋漆竿竹), 자문죽(自紋竹)을 한 발가웃씩 되는 것을 사다가 육모깎지희자죽(喜子竹), 오동수복(梧桐壽福) 연변죽을 이리저리 맞추어 가지고 저 재령(載寧) 나무리 거이 낚시 걸듯 죽 걸어 놓고 잡수시오.

양반들 :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소. 양반 나오시는데 담배와 흰화(喧譁)를 금하라 그리 하였습니다.

양반들 : (합창) 흰화를 금하였다네.(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생원 : 네 이놈, 양반을 모시고 나왔으면 새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이리 돌아다니느냐?

말뚝이 : ㉡(채찍을 가지고 원을 그으며 한 바퀴 돌면서) 예에, 이마만큼 터를 잡고 참나무 울장을 드문드문 꽃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을 하늘로 낸 새처를 잡아 뵈었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자좌오향(子坐午向)에 터를 잡고, 난간 팔자(八字)로 오련각(五聯閣)과 입 구(口)자로 집을 짓되, 호박주초(琥珀柱礎)에 산호(珊瑚) 기둥에 비취 연목(翡翠椽木)에 금파(金波)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天板子)요, 내려다보니 장판방(壯版房)이라. 화문석(花紋席) 치다 펴고 부벽서(付壁書)를 바라보지 동편에 붙은 것이 담박녕정(澹泊寧靜)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중유태화(百忍堂中有泰和)가 완연히 붙어 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仁義禮智)가, 북편을 바라보니 효제충신(孝悌忠信)이 분명하니, 이는 가위 양반의 새처방이 될 만하고, 문방제구(文房諸具) 불작시면 용장봉장, 궤(櫃), 두지, 자개 함룡(函籠), 반닫이, 셋별 같은 놋요강, 놋대야 받쳐 요기 놓고 양칠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 놓고,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푸루 선창에 돼지 똥물에 축축 축여뵈었습니다.

생원 : 이놈, 뭐야!

말뚝이 : 아, 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 뵈었다 그리 하였습니다.

양반들 : (합창) 꿀물에다 축여 뵈었다네.(굿거리장단에 맞춰 일제히 춤춘다. 한참 추다가 춤과 음악이 끝나고 새처방으로 들어간 양을 한다.)

양반들 : (새처 안에 앉는다.)

13. 윗글의 진행구조로 옳은 것은? [3점]

- ① 양반의 질책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말뚝이의 항거
- ②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질책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
- ③ 말뚝이의 항거 → 양반의 질책 → 말뚝이의 안심 → 양반의 변명
- ④ 말뚝이의 인사 → 양반의 질책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질책
- ⑤ 말뚝이의 항거 → 양반의 안심 →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변명

14. 밑줄 친 ㉠ 말뚝이 대화에서 주로 행한 수사법은?
[2점]

- ① 점층법
- ② 점강법
- ③ 억양법
- ④ 은유법
- ⑤ 직유법

15. 밑줄 친 ㉡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탈춤의 특징은?

- ① 일정한 무대 장치가 없다.
- ② 양반을 조롱하려는 태도이다.
- ③ 등장인물의 수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 ④ 관객이 극중 현실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
- ⑤ 일정한 대본 없이 공연 환경에 따라 대본이 바뀐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6-18]

우리는 모두 (㉠) 어떤 위험을 겪는지 어린 시절부터 배워 잘 알고 있다. 색다른 사람을 조롱하며 따돌릴 힘이 타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익히 아는 것이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누구든 어렸을 때 시를 쓰고 싶어 했다거나, 여자애로서 사내애들의 공놀이에 끼려고 했다가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술가들은 계속해서 이 교훈을 뼈저리게 배워 나가는 존재이다. 마음이 가는 대로 창조해낸 작품은 남들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날지도 모른다. 한 재미있는 통계에 따르면 사진작품은 현상된 때로부터 5년 정도 경과되어야 비로소 팔리기 시작한다고 한다.

사실 오늘날 인기 있는 작품도 처음 나왔을 때는 별볼 일 없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면 무대 예술가들의 경우는 작품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두려움을 안고 있다. 실례로 어느 지휘자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 파리 첫 공연 도중 썩은 과일 세례를 받았고, 밥 딜런은 전자기타를 든 첫 라이브 무대에서 관중들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추락하고 있다는 절망감에 빠지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 이유는 언제나 이전 작품이 더 매력적이고 더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해를 받고자 하는 것은 기본

적인 욕구로서, 주위 사람들과 동일한 인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과정이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무시무시하다. 자신의 진정한 작품에 대한 이해를 거절할 힘을 감상자에게 내어주어, 그들에게 “당신은 우리와 다른 이상한 존재이다. 당신은 미쳤다”라고 말할 권력을 주는 것이다.

16. (㉠)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은?

- ① 뛰어난 재능을 가지면
- ② 예술에 관심을 보이면
- ③ 남들과 다르면
- ④ 남들을 무시하면
- ⑤ 권좌에 오르면

17. 윗글의 논지와 부합하는 내용은?

- ① 예술가가 감상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② 예술가는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 ③ 예술가는 대중의 취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④ 예술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 감정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 ⑤ 예술가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

18. 밑줄 친 ㉡과 통하는 속담은? [2점]

- 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 ②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
- ③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 ④ 구관이 명관이다
- ⑤ 짝 게 비지떡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20]

[가]

여승(女僧)은 합장(合掌)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의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낮이 넷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佛經)처럼 서러워졌다

[나]

평안도(平安道)의 어니 산 깊은 금덤판
나는 파리한 여인(女人)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女人)은 나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다]

쇼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십 년(十年)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라]

산평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19. 이 시의 각 연에 담긴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구성한 것은?

- ① [가]-[나]-[다]-[라]
- ② [나]-[다]-[라]-[가]
- ③ [라]-[나]-[가]-[다]
- ④ [다]-[나]-[라]-[가]
- ⑤ [나]-[다]-[가]-[라]

20.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 시의 화자는 여승이다.
- ② 이 시의 화자는 여승의 남편이다.
- ③ 여인의 딸은 지아비를 따라 집을 나갔다.
- ④ 이 시의 화자는 여승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
- ⑤ 여인은 죄도 없이 교수형에 처해졌다.